

슬픔을 승화하는 안달루시아 축제

스페인 그라나다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아련한 애수를 자극하는 안달루시아

이베리아 반도의 최남단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엔 무언가 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슬픈 역사를 간직한 알함브라 궁전이나 그 건너편의 사크로몬테 언덕, 스페인의 민족 시인으로 1930년대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기념관까지 모두 애수를 자극한다. 끊어질 듯한 선율로 애잔함을 주는 타레가의 기타 연주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이런 정서를 각인한 세계적인 명곡이다. 심지어 작렬하는 태양과 빠르고 현란한 플라멩고, 투우에조차 아련한 슬픔이 녹아 있다.

하지만 그라나다엔 애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아픔과 상처를 승화시키는 축제가 있었다. 아주 요란하지도 않고, 요즘 한국의 각 지방에서 벌어지는 축제처럼 소비주의 또는 상업주의에 물든 축제도 아니었다. 때로는 장엄하고, 숙연한 느낌마저 주지만,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삶에 활력을 되찾게 하는 축제였다. 필자 가족도 그 축제 행렬을 지켜보며 슬픔을 넘어서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라나다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유럽에 남아 있는 대표적 이슬람 궁전인 알함브라 궁전이지만, 그보다 앞서 돌아보아야 할 곳이 있다. 알함브라 건너편 옛 이슬람 거주지역인 알바이신과 새크라멘토 지역이다.

알바이신은 과거 이슬람 거주 지역으로 아직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다. 하얀 회벽과 적갈색의 지붕이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고, 이슬람의 목욕탕 시설인 하맘 유적, 이슬람식 정원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알바이신 전망대에 오르면 계곡 건너편 알함브라 궁

전과 일대의 구시가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변영을 누렸던 그라나다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다. 8세기 초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이슬람은 스페인의 국토회복운동인 레콘키스타(Reconquista)에 밀려 1492년 최종적으로 패퇴할 때까지 그라나다를 근거지로 삼아 마지막 전투를 치렀다.

알함브라 위쪽에 '성스러운 산'이라는 의미의 사크로몬테가 있다.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군대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면서, 흰 벽과 골목을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인 곳이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패색이 짙어지자 항전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항전을 택했다. 그들은 건너편의 알함브라를 바라보며 눈물과 피를 뿌리며 마지막 절망적인 전투를 치렀다고 한다.

이 지역은 이후 한동안 폐허로 방치되다 집시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지금도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집시들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동굴 주거지에 들어가 살았다. 지금도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 하얀색 외관의 옛 동굴 유적들이 남아 있다.

유럽 최고의 이슬람 궁전 알함브라

2000년대 이후 그라나다가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알함브라 궁전 때문이다. 워낙 인기가 높아 티켓 예약제를 시행할 정도다. 예약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일정 수의 티켓을 새벽에 현장에서 발매한다. 우리도 그라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을 시도했으나 이미 티



알함브라 궁전. 유럽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궁전으로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알함브라 궁전에 만들어진 연못. 곳곳에 물길을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켓이 바다나 셋째 날 새벽에 티켓 발매소로 달려가 한참 기다린 끝에 오후 입장권을 살 수 있었다.

알함브라는 파리의 베르사유나 빈의 쉐부른 같은 유럽 궁전들과 확실히 달랐다. 유럽의 궁전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넓은 정원으로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알함브라는 아기자기한 공간 구성이 놀라움을 주었다. 특히 바람과 물,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궁전 곳곳에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전통적인 이슬람 양식이다.

여기에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의 보아브달이 기독교 세력에 알함브라 궁전을 내주고 도주하다 되돌아보며 궁전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아련함을 자극한다. 이때가 1492년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라나다가 역사적 분기점의 중심이었던 셈이다.

궁전은 메수아르, 코마레스, 라이온 궁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거의 붙어 있어 언뜻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중에서도 왕의 집 무실 옆에 마련된 기도실이 흥미로웠다. 기도실에 서니 계곡 건너로 알바이신과 사크로몬테 언덕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민 주거지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을 이슬람의 왕처럼 우리도 건너편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언덕을 아련하게 내다보았다.

슬픔을 승화하는 안달루시아 축제

우리 가족이 그라나다를 여행할 때에는 마침 부활절을 맞아 스페인 최대 축제의 하나인 안달루시아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는 일주일 동안 해가 넘어가는 저녁부터 시작해 한밤중~새벽까지 진행되었다. 4월인데도 ‘시에스타’로 3~4시간의 긴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낮의 거리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해가 기울면서 거리가 활기를 찾기 시작해 석양이 질 때부터 축제 열기가 달아올랐다. 우리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축제는 각 성당이 고난에 처한 예수나 비탄에 빠진 성모 마리아의 상을 앞세우고 그라나다 구시가지 중심의 카테드랄까지 행진한 다음,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성당은 장중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과 함께, 사제들은 각 교구가 지닌 보물을 꺼내 들고, 신도들은 검은 고깔모자를 쓰는 등 특이한 복장을 하고 행진에 참가했다. 행렬이 장엄하고 숙연한 느낌까지 주었지만, 그렇다고 엄숙한 것은 아니었다. 흥분과 숙연함이 묘하게 공존했다.

성당별로 행진 날짜와 시간, 코스도 모두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행렬이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카테드랄에 도착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밤에 행렬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제도



안달루시아 축제 행렬. 한밤중에 성모 마리아 상을 앞세운 행렬이 그라나다 시내를 지나고 시민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성당은 행진 거리가 짧아 오후 늦게 출발해도 되지만, 거리가 먼 경우 거의 온 종일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성당의 사제들과 지역의 신도들 및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준비하고 즐기는 것이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행렬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어른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 심지어 휠체어의 노인까지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겼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행렬이 지나갈 때는 환호하면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축제는 자정을 넘기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는 가족들도 많았다. 낮에 시에스타로 쉴 수 있으니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묵은 호스텔 여주인은 “새벽 4~5시까지 계속돼요. 모두 제정신이 아니에요. 축제에 미쳤어요 (crazy). 호호호.” 하고 활짝 웃었다.

이 축제야말로 인간 정서의 저 밑바닥에 깔린 슬픔과 애수를 달래 주고, 현실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제의요, 기원이었다. 그라나다 곳곳에 어린 예수도 그 축제의 열기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원래 축제란 이런 것 아닌가.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더라도, 경제위기가 몰아치더라도,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은가. 위기가 오더라도 삶은 지속하여야 하고, 축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 절제된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상을 메고 가면서 새로운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러한 축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망하기보다는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제가 나아져도 이런 전통을 잃는 사회는 그만큼 삶의 지혜를 잃는 것이다. 안달루시아 축제는 슬픔을 새 삶으로의 부활로 승화시키는 공동체적 제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여정이었다.